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17.(목) 18:00
(지면) 2026. 9. 18.(금) 조간

배포 2026. 9. 17.(목) 15:00

해수부, 주한 6개국 외교단과 함께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 준비 본격화한다

- 주한 외교단과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 진행
-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 주요 의제 및 국제 협력 방향 논의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7일(목) 서울에서 노르웨이, 칠레,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브라질 등 주한 6개국 외교단과 간담회를 열고, 202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주요 의제와 국제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엔해양총회(UNOC)」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마다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UNOC4」에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2만 명이 참석해 해양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1차는 스웨덴(장소는 유엔본부, 2017), 2차는 포르투갈(2022), 3차는 프랑스(2025년)에서 개최했으며, 3차 총회에서는 정상급 인사 60여 명을 포함한 15,000여 명이 참석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해수면 상승 등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 현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관심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2028년에 개최되는 「UNOC4」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필요한 의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에스펜 프레드릭 라센(Espen Fredrik Larsen) 노르웨이 대사 내정자는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정 이행, 해수면 상승 대응, 심해 채굴,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관리 등 해양의 다양한 문제는 많은 국가가 협력해야 하며, 특히 논의된 방법의 실천과 이행이 중요하므로 한국과 UNOC4 공동 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노르웨이가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차례의 주한 외교단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각 간담회에서 국가별 관심 의제와 정책 경험, 「UNOC4」에 대한 기대 등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 (1차) 미주·유럽 국가, (2차) 아시아·태평양 국가, (3차) 아프리카 국가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가 국제사회의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과 협력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한 외교단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총회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유엔해양총회준비기획단 대외협력팀	책임자	팀장	위민복 (051-773-6820)
		담당자	사무관	전상훈 (051-773-6809)

참 고

간담회 사진

